ISSN 2508-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통권 33호, 2024. Vol.9 No.4

그래피티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 조사

Investiga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on Graffiti

주 저 자 : 김문석 (Kim, Moon Seok)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kms@kw.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4.4.310

접수일 2024. 11. 24. / 심사완료일 2024. 12. 01. / 게재확정일 2024. 12. 09. / 게재일 2024. 12. 30.
본 논문은 2024학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Abstract

Graffiti was noticed by Keith Haring and Basquiat in the 1960s and is recognized as a genre of contemporary art. In modern times, many world-class artists are engaged in work mainly with Banksy.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graffiti, the act of graffiti is precariously crossing the line between law and illegality. There are also cases where illegal graffiti can be punished for various reasons and not punished. In Seattle, the US, the 'Graphy Control Act' was reviv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sciousn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related to such graffiti. The survey method was a survey metho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and analysis of perception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accumula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analyzed that most of the college students recognized graffiti as an artistic act and responded positively. This is a different reaction from most news or articles related to graffiti in the Korean media. For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graffiti in Korea through a wider generation of graffiti perception surveys in the future.

Keyword

Graffiti(그래피티), Cconsciousness Survey(의식 조사), Korean University Student(한국 대학생)

요약

그래피티는 1960년대 키스해링, 바스키아 등에 의해서 주목받으며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인정되고 있다. 현대에는 뱅크시 등을 위주로 세계적인 작가들이 많은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피티의 특성상 그래피티 행위는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다. 불법적인 그래피티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하기도 하고, 처벌하지 않기도 하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다. 미국 시에틀에서는 '그래피티 단속법'이 부활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래피티에 관련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의식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5점 리커트척도를 활용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누계에 따른 인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그래피티에 대해서 예술행위로 인정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언론에 등장하는 그래피티 관련 뉴스나 기사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상이한 반응이다.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서 향후, 보다 광범위한 세대의 그래피티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에서 그래피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그래피티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

2-2. 그래피티 관련 사건 및 판례 사례

3. 그래피티에 대한 대학생 의식 설문조사

3-1. 설문 개요 및 설문 구성

3-2. 그래피티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그래피티)를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임모(17)군을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임군을 체포했다. 20분 뒤엔 공범인 10대 김모(16)양을 임군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다. 둘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군 등은 체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관련 낙서를 경복궁 담벼락에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선전하는 낙서를 했다. 경찰은 이들 낙서범들에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1] 위 사건의 범인은 처벌을 받았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가 런던의 시내에 공공기물에 그래피티를 그린작품이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굴없는 거리 예술가'로 알려진 영국 출신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이 영국 런던의 한 거리에 공개된 지 한 시간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런던 경찰이 뱅크시의 작품이 그려진 도로 표지판을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런던 남동부 페컴지구의 한 교차로에서 빨간색 '정지' 표지판 위에 군용 드론 3대가 날아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 등장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남성이 절단기를 가져와 이 작품을 잘라내 가져갔고,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기 시작했다. 런던 경찰은 작품을 떼어 간 남성은 절도 및 범죄 피해 혐의로 구금되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지' 표지판은 도로를 지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체 설치됐다. 뱅크시는 세계 곳곳의 거리에 반전과 평화, 사랑, 환경, 국가권력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남겨 왔다.[2] 위 사건에서 그래피티를 한 뱅크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그래피티 행위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미국 시에틀에서는 최근 '그래피티 단속법'이 부활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래피티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의식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는 그래피티에 대한 기초조사 및 그래피티에 대한 세계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는 그래피티에 대한 어원과 태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하고, 그래피티 작가의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한다. 본론에서는 그래피티 관련 사건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다. 한국 대학생들의 그래피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설문을 통한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은 2024년 9월 23일 대학생 28명을 대상으로 5점 리커드 척도(Likert Scale)[3]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래피티의 개념 및 이론적 접근

그래피티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 벽이나 기타 표면에 그려지는 낙서와 같은 문자나 그림을 의미한다. 이 예술 형태는 주로 거리에서 발생하며, 현대 그래피티는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브롱크스 지역에서 반항적인 청소년들과 소수 민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그래피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4] 그래피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예술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특히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에 그래피티는 힙합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장 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해링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이 장르의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 그들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통해 그래피티를 현대 미술로 인정받게 했다.

최근에는 그래피티가 공공 예술로서 인식되면서, 많

1) www.chosun.com, 조선일보, 고유찬, 2023.12.20.

2) www.khan.co.kr, 경향신문, 노정연, 2023. 12. 24.

3) 리커트척도(Likert Scale) : 특정 대상, 개념 등에 대한 개인의 신념, 태도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4) 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13368, 아트인사이트, 김지현, 2024.11.23.

은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래피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티스트들은 이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작업을 하며, 미술관에서도 그래피티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래피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피티는 단순히 낙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젊은 세대의 반항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5)]

그래피티(Graffiti)는 '낙서'라고도 할 수 있으며 벽이나 다른 표면에 글씨를 쓰거나 긁거나 페인트로 칠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낙서는 일종의 자기만의 고유 언어이다. 내면 깊은 곳의 감정이나 즉흥 심상과 같이 순간이고 꾸밈없는 내질서로서 행자의 기질과 성향을 나타내며, 행위자의 주관이 감상자에게 객관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낙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언어이며 내면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로서 자기만의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현이 그대로 이해되지 않는 특징이 있을 수 있다.

낙서를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의 사상, 관념, 주장 등을 노출시킴으로써 외부로 자신의 욕구를 표하려 한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 시대의 도시문명사회가 만들어낸 단절감과 소외감에 대한 하나의 표출이며, 정신적 욕망의 배설구로서 억압에 대한 해방구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서는 남과의 소통행위인 것이다. 낙서는 행위자와 이해자의 상호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행위자 표현으로서 기호의 역할이 나타나고, 그것은 인간의 기본 심리적 구조, 사회 공통의 가치, 기호체계의 종합 특성의 삼각구도의 총합으로서 표현 된다.

이러한 소통행로서 낙서는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무의식 속의 자신을 낙서라는 표현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드러낸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내면세계의 표현과 현대인의 또 다른 솔직한 자기표현인 낙서는 현대인들의 공허하고 삭막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 준다. 이것은 무의식 속에 갖게 되는 또 다른 자기세계의 표출이며 자기 방어인 것이다. 그 속에는 자기 철학과 자각, 심리 상태, 더 나아가 사회비판, 풍자와 해학이 담겨있다.[6)]

5) www.jjan.kr/article/20081007284779, 전북일보 도휘정, 2024.11.23.

6) 이현경, 낙서화의 커뮤니케이션 속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8~10.

2-2. 그래피티 관련 사건 및 판례 사례

2018년 2월 13일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그래피티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그래피티를 철거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임시적 특성을 가진 그래피티와 관련하여 "인정된 지위(Recognized Stature)"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써 그래피티가 인정된 지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롱아일랜드시티(Long Island City)에 위치한 5Pointz Aerosol Art Center, 이하 "5Pointz")는 여러 채의 대형 창고 건물들로 이루어진 노후화된 공업단지이다. 1993년 한 비영리단체가 그래피티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당시 5Pointz의 소유자였던 피고는 건물 외벽의 무상 이용을 허락하였으며 이후 많은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5Pointz에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5Pointz는 전 세계 그래피티 예술가들의 창작 및 전시 공간이자 관광 명소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각종 영화와 사진 촬영 장소로도 애용되었다. 2013년 10월 피고의 5Pointz 철거 및 재건축 개발 계획안이 뉴욕 시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5Pointz에 그려진 주요 그래피티를 창작한 예술가들은 철거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3년 11월 뉴욕 동부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래피티는 철거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흰색 페인트로 회칠해진 후 철거되었다. 이에 대하여 2015년 6월 3일 원고는 49점의 5Pointz 그래피티에 대하여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동일성유지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이하 "VARA) 제106조(a)(3)(B):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는 인정된 지위(recognized stature)를 가지는 저작물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파괴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관련 법률을 적용하였다.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그래피티가 그려진 건물의 소유자가 저작자의 동의없이 그라피티를 철거한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명시적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임시적 특성을 가진 그래피티도 VARA의 보호 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다양한 미디어상에서 작업을 하며 수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원은 특정 저작물이 VARA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식과 예술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

며 특정 시각예술저작물이 인정된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위 판결의 평가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그래피티가 설치된 부동산으로부터의 그래피티 철거와 관련하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임시적 성격의 그래피티와 관련하여 VARA상 인정된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며 이번 판결은 그래피티가 VARA상 인정된 지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들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7)]

위 사례와 같이 그래피티는 공공시설미나 건물 등에 그려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피티 작가에게도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잘 그려진 그래피티는 단순 낙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고 유지하며 관리해야 하는 작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3. 그래피티에 대한 대학생 의식 설문조사

3-1. 설문 개요 및 설문 구성

한국 대학생들의 그래피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연구자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그래피티 이티스트인 뱅크시(Banksy)의 그래피티 관련 사건에 대한 언론기사를 사례를 들어 대학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기초 설계를 위하여 그래피티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키워드의 주요 내용은 예술성, 표현 방식, 메시지 전달 도구, 문화적 특성, 도시재생의 역할, 합법성과 불법성, 소유권, 공공미술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대학생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참조

설문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이 설문내용에 따라서 그래피티를 대하는 대학생의 인식의 정도를 묻는 14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방법은 위 연구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설문지 배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2024년 9월 23일 문화산업을 전공하는 대학생 28명(남학생 10명, 여학생 18명)을 대상으로 5점 리커드 척도 (Likert Scale)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표 1] 설문 문항 기초 설계

핵심 키워드
예술성
표현 방식
메시지 전달 도구
문화적 특성
도시재생의 역할
합법성과 불법성
소유권
공공미술의 역할

[표 2] 설문 문항 구성

연번	설문 문항의 내용
1	나는 평소 그래피티는 예술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2	나는 그래피티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3	나는 그래피티가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4	나는 그래피티가 도시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5	나는 그래피티가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6	나는 그래피티가 방치된 건물이나 삭막한 벽을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7	나는 그래피티가 불법적으로 행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적절한 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 예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그래피티를 공공장소나 개인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피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나는 그래피티는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그래피티가 도시의 슬럼화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그래피티는 예술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도시 곳곳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공공미술로 생각한다.
13	특정 건물에 작가미상의 그래피티가 불법으로 그려졌는데 그 그래피티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나는 그래피티의 소유권은 작가가 아닌 건물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도시 곳곳에 그래피티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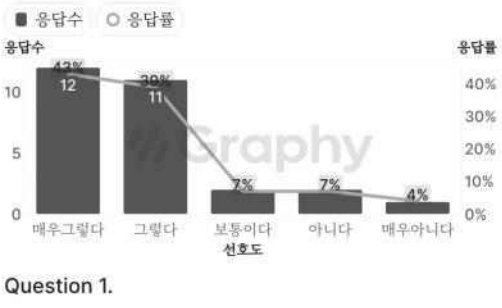
7) 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2221, 박경신, 요약, 2024.11.23.

3-2. 그래피티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분석

그래피티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 분석을 위한 설문으로 구성된 총 14문항에 대한 설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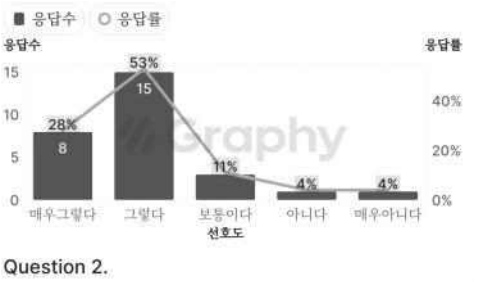
먼저, '나는 평소 그래피티는 예술행위로 인정하고 있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를 예술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82%를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피티를 예술의 범주에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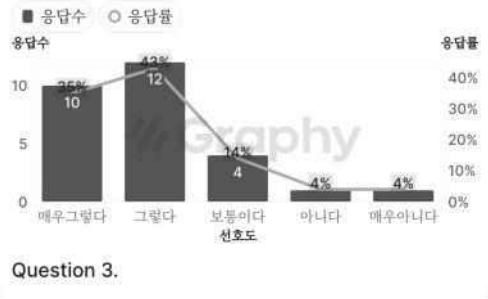
[그림 1] 그래피티를 예술로 인정하는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를 예술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81%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피티를 예술 행위에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그래피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가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를 예술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78%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피티를 사회적,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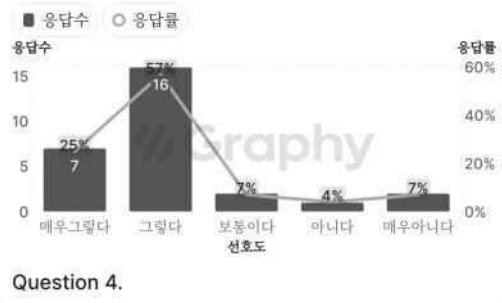


[그림 3] 메시지 전달 도구로서 그래피티에 대한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가 도시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8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1%의 학생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피티가 문화적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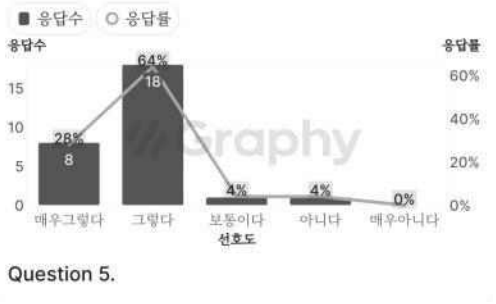


[그림 4]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그래피티에 대한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가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공공물을 통한 그래피티 작가의 예술 표현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92%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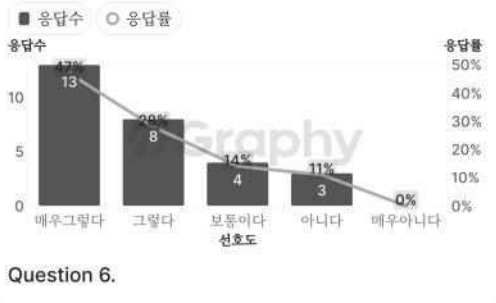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래피티를 공공장소에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참조



[그림 5] 공공물을 통한 그래피티 작가의 예술 표현 방식에 대한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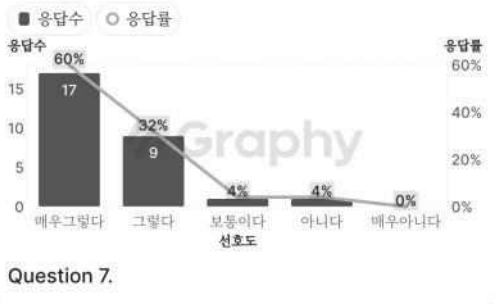
'나는 그래피티가 방치된 건물이나 삭막한 벽을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8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1%의 학생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도시재생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참조



[그림 6] 그래피티의 도시재생의 역할에 대한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가 불법적으로 행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적절한 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 예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합법적으로 행해진다면 도시예술로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의 응답률이 82%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준법성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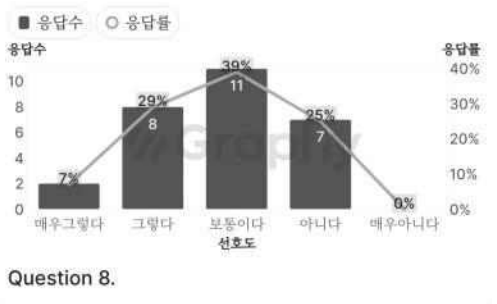


[그림 7] 그래피티의 준법성에 대한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를 공공장소나 개인 소유의 건물에 무단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피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 행위의 금지에 대한 응답률이 중립적인 의견이 39%, 그렇지 않다가 36%, 그렇다가 25%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불법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피티 행위 금지에 방점을 둔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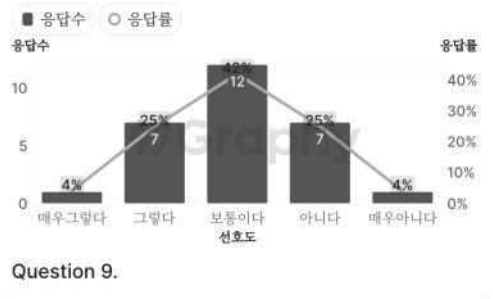
[그림 8] 그래피티 행위의 금지에 대한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는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단적으로 불법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응답률이 그렇다 의견이 44%, 중립이 28%, 합법이다가 28%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피티의 불법성에 대하여는 많은 학생이 합법과 불법 사이의 중간지점에 머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은 그래피티 자체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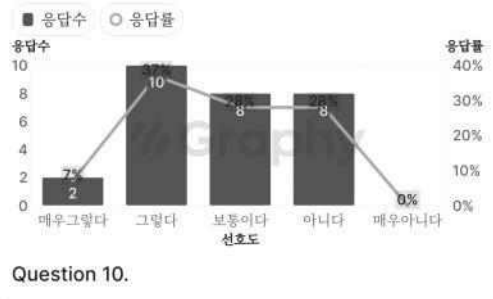


[그림 9] 그래피티의 불법성에 대한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가 도시의 슬럼화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사회에 이슈가 되는 그래피티 관련 기사에 따르면 그래피티가 도시의 흉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그래피티가 도시슬럼화를 촉힌하지 않는다에 대한 그렇다의 응답률이 44%, 아니다는 28%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래피티 자체는 도시슬럼화와는 비교적 무관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참조



[그림 10] 그래피티의 도시슬럼화에 대한 응답률

'나는 그래피티는 예술로서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그래피티가 예술인가 낙서인가 라는 질문은 그래피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곤 한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86%가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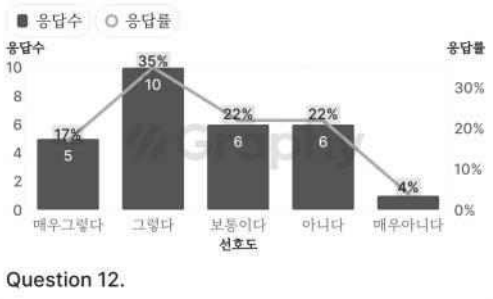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래피티의 예술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 그래피티의 예술성에 대한 응답률

'나는 도시 곳곳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공공미술로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를 공공미술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4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2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대학생들은 그래피티를 공공미술의 범주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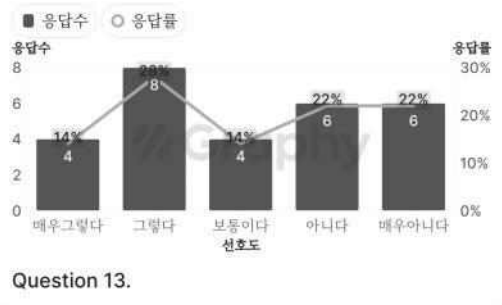
[그림 12] 공공미술로서의 그래피티에 대한 응답률

'특정 건물에 작가미상의 그래피티가 불법으로 그려

졌는데 그 그래피티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나는 그래피티의 소유권은 작가가 아닌 건물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의 소유권이 건물주에 있다고 하는 견해는 42%가 작가에게 있다는 견해는 44%가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그래피티의 소유권에 대해서 건물주와 작가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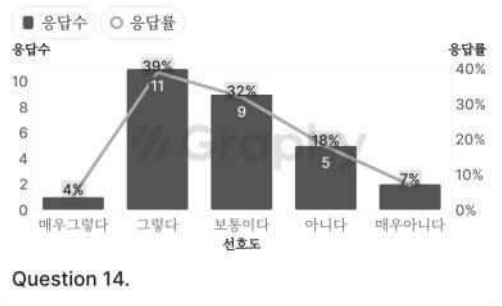


[그림 13] 그래피티의 소유권에 대한 응답률

'나는 도시 곳곳에 그래피티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답변이다.

대학생들은 그래피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는 43%, 그렇지 않다는 25%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그래피티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4] 참조



[그림 14] 그래피티의 활성화에 대한 응답률

4. 결론

그래피티에 대한 한국 대학생의 의식 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피티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래피티를 예술의 범주에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래피티를 예술 행위에 있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피티를 사회적,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이해하고 있고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래피티를 공공장소에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여기며 도시재생에 필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피티는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그래피티 자체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피티는 도시슬럼화와는 비교적 무관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으며 공공미술로서의 역할도 한다. 그래피티의 소유권은 작가와 건물주가 동등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피티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그래피티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이 그래피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그래피티가 예술 혹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널리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이 그래피티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그래피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래피티는 종종 창의성을 유발하고 예술적 표현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그래피티는 때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사회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래피티가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의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나 단체들이 그래피티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그래피티를 포용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이현경, 낙서화의 커뮤니케이션 속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www.artinsight.co.kr
3. www.copyright.or.kr
4. www.chosun.com
5. www.jjan.kr
6. www.khan.co.kr